

01 교회소식

참된 안식을 얻는 교회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제단으로 인도되어 영생과 참 행복의 주인공이 된 우리 교회 외국인 성도들의 이야기.

02 생명의 말씀

오직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사랑을 항상 체험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믿음으로 꿈을 이루고, 갑작스러운 사고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시는 사랑을 깨우치는 등 삶 속에 가득한 주의 은혜를 전한다.

04 간증

“몸과 마음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중 전도되어 건강과 영생의 축복을 얻은 권석중 성도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불명 된 어머니가 소생한 김소희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73호 2017년 1월 2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새로 태어난 곳, 한국은 믿음의 고향입니다”

타국에서 행복 찾은 해외교구, 중국교구, 주사랑선교회 성도들



고국을 떠나 낯선 땅, 한국에 와서 문화 차이, 질병, 재정 문제 등으로 힘겹게 사는 외국인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전도된 이들은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각종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 받아 참된 안식과 행복을 얻고 있다.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된 해외교구

해외 성도들의 모임인 해외교구에는 현재 10개국에서 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다.

불어권, 영어·일어·스페인어권, 동남아시아, 베트남, 몽골, 러시아어권 총 6개 구역이 있으며, 현지 출신 성도들이 구역장을 맡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어를 단기간에 익혀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심방에도 동행하여 통역으로 섬기고 있다.

성결의 복음을 통해 선과 사랑을 배우니 의사 소통의 문제, 문화 차이, 고부 갈등 등으로 이혼율이 높은 다문화 가정도 전도되어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베트남 구역장 리유 집사(33세)는 “타국생활이지만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행복

해요. 구역도 부흥하여 작년에는 우수 구역장상을 수상했고, 남편 사업터에도 축복이 넘칩니다. 설교 통역을 위해 번역하면서 시력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국적과 인종은 다르나 주 안에서 목자의 사랑을 느끼니 서로 나누고 돌아보며 구제하는 등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다. 해외교구 성도들은 때가 되면 자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뜨겁게 천국을 침노하는 중국교구

중국교구는 교포들로 구성된 1교구와 한족으로 구성된 2교구로 나뉘어 있고, 자체적으로 찬양팀과 율동팀이 있어 모임 시 준비찬양과 특송을 담당하고 있다.

아픈 몸과 마음으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고 여러 문제를 해결 받은 후에는 삶에 소망이 넘치고 있다.

김월순 집사(80세)는 사물을 정상으로 볼 수 없는 황반변성 시력저하와 백내장을, 김연옥 집사(78세)는 유방암을, 김춘일 집사(55세)는 고질적인 천식을, 김순자

집사(68세)는 위암수술 후유증을, 이민화 집사(60세)는 척추 압박골절을, 장영숙 권사(52세)는 유방명울과 빈혈을, 김일화 집사(49세)는 심장질환과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치료받는 등 간증이 끊이지 않는다.

원창순 권사(63세)는 “처음 교회에 온 날, 단에서 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안과 질환과 허리 디스크를 치료받았어요. 이후 쌍꺼풀도 생기고 시력이 좋아져 작은 글씨도 잘 봅니다.”라고 간증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중국교구 성도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복음 전파와 사명 감당에 힘써 교구가 날로 부흥하고 있다.

사선을 넘어와 참된 안식과 행복 찾은 주사랑선교회

새터민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탈북해 한국에 등지를 틀기까지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긴 하나 입국 브로커들에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취업이 되어도 적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세뇌교육과 김일성 이상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새터민들의 모임인 주사랑선교회 회원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뇌경색, 백내장, 관절염 등 각종 질병과 불안증, 우울증 등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받고 있다. 또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구제로 인해 안정된 생활 가운데 믿음이 심어져 주일 성수를 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오직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한 대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원수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정육을 좇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참된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릇인 구유에 누이셔야 했지요.

요한복음 6장 51~5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한 대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도 인생들의 가난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가난한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요 1:12).

2.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곧 천하 인간에 구원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 오로지 ‘예’와 ‘아멘’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빌 2:6~7). 자기 의사나 마음, 감정에 상관없이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종의 본분입니다. 이런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시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지요. 하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속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루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곧 창조주로서 천하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면 무생물인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여 잔잔해졌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 그 시로 마르는 역

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2절 이하를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 하십니다.

이처럼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해내는 권세가 있으셨지요.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롬 5:8).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지요. 이처럼 주 예수의 이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사랑을 항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창 1:27, 2:7).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으니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육체의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창 3장).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홀로 눈물 흘릴 때 주님 품으로 인도받아 행복을 찾고 믿음으로 꿈을 이루며, 권능의 기도로 죽음 직전에 놓인 소중한 가족이 살아나고, 갑작스러운 사고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본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의식불명에서 깨어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자스완트싱 성도 | 69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저희 부부가 교육감상을 받았어요”

박가영 집사 | 34세, 2대대 17교구

2014년 11월, 저는 인도 남부 첸나이에 사는 누님 댁에 방문했다가 첸나이만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 년 전 죽은 아내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있었고, 자리에 누웠다 일어날 때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2016년 7월에는 병원 검사 결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의 위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8월 2일,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튿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요. 저는 큰딸에게 한국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 중인 한정희 담임목사님에게 연락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6일째 되는 날 급기야 심장마비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담임목사님은 당회장님께 직접 기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자 7일 주일 새벽, 제 이름을 오른손 바닥에 적고 믿음으로 당회장님과 악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불명이던 제가 깨어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일반실로 옮겨졌고 그 다음날 퇴원할 수 있었지요. 우울증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학창시절,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설교에 은혜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과학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의 기도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금의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순간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지요. 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자 저는 2016년, 남편과 함께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에도 하나님께서는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축복으로 값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 김성진 집사는 교육정책 관련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감상을 받았고, 저는 과학영재교육 및 과학교수법에서 창의적인 수업을 개발한 공로로 두 개의 교육감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도 취득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가족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고, 가족 모두 각 선교회의 일꾼이 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회장님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울대 성악과 합격,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형민 형제 | 20세, 부산만민성결교회

저는 어릴 적부터 눈병, 수족구, 농가진 등 유행성 질병들을 자주 앓았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 받는 체험을 하며 강건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민찬양이 너무 좋아 성악을 시작했는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에 레슨받기 전에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

다. 각종 콩쿠르에 나갈 때도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가슴에 품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 결과, 쟁쟁한 예고 학생들이 출전한 대회에서도 성악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계속 큰상을 받아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였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제게 믿음으로 행군하면 서울대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저는 어릴 때부터 성악을 준비한 것이 아니기에 서울대 입시 준비는 현실적으로 볼 때 녹록지만은 않았지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서울대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당회장님 꿈을 여러 번 꾸었기에 시험 당일, 저는 마음이 평안하였지요. 그 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받은 뒤 분쇄 골절된 뺨조각이 제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송석길 장로 | 56세, 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



2016년 6월 18일,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의사는 오른쪽 어깨뼈가 탈골되고 뼈 일부가 깨져 조각난 상태로 뺨조각에 핀을 박아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의사들이 탈골된 어깨뼈를 맞추고자 몇 차례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하자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의사가 탈골된 어깨뼈를 맞추고자 하니 순식간에 정상으로 위치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분쇄 골절된 뺨조각이 제자리로 회복되어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탈골 소견과 상완골 대결절이 분쇄 골절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



분쇄 골절된 상완골 대결절 조각이 수술받은 듯 가지런히 제자리로 회복되었고 탈골도 정상으로 위치하고 있다.

7월 3일, 산상기도 중 내려오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그날 저녁 바로 보호대를 풀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2017 JANUARY
2017. 1.22~ 1.28
주요프로그램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교계와 해외선교
- 창조의 권능
- 창세기 강해 74-80
- 목자의 열매
- 심자기의 도 11-15
- 아름다운 성전
- 공부 잘하는 비결 1-5
- 생명의 씨 1-3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 지옥 1-5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3-15

GCN TV설교

- 아버지의 섭리 2(이수진 목사)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2(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27(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9(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6(정구영 목사)
- 죽은 자를 위한 세계(이재명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6)
- 권능 스페셜 20
- 창조와 과학 8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9
- 내 마음의 찬양 29
- 모두 드려요 44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9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6

GCN HD 채널 ktalleg tv 882번

